

도라지 표준 유전체 해독

농진청, 세계 최초로... 장백도라지 선정 680Mb 해독·유전자 4만18개 발굴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세계 최초로 도라지 표준유전체를 해독하고 도라지 사포닌 생산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을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표준유전체란 특정 생물종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유전체 정보를 말한다.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 사업을 통한 유전체 해독은 생명체가 가진 유전자의 종류와 개수, 구조, 기능 등을 밝히는 연구로서, 우수한 유전자를 활용하여 종자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토종 품종 유전체 해독을 다른 나라가 먼저 할 경우, 신종종을 개발할 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전자원 규명 확보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연구다.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은 농식품부, 농진청, 과기부 등 7개 부·청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농촌진흥청은 8년간 농작물, 가축, 곤충 등 우리 고유자원 40작목의 유전체 해독을 담당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인 장백도라지를 선정, 유전체 680Mb를 해독하고 유전자 4만18개를 발굴했다. 도라지의 주요 약리물질인 사포닌의 대사경로를 분석한 결과, 기관지 보호 효과가 뛰어난 베타아미린에 관여하는 24개 유전자를 새롭게 밝혔다.

도라지와 인삼은 다른 종류의 사포닌을 생산하며, 여기에는 4개의 유전자가 관여하는 것도 밝혀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라지 사포닌 함량이 높은 종자개발, 유용물질의 대

량생산 등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도라지에서 해독된 유전체 정보를 이용해 더덕과 도라지를 구별하는 분자마커를 개발해 특허출원과 기술이전을 진행했다. 이번에 해독된 도라지 유전체 정보는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에 공개되어, 일반 연구자, 종자기업, 산업체 등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명자원부 윤종철 부장은 "유전체 정보는 생명체의 표준 설계도로 생명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원천 지식재산권"이라며, "도라지 유전체와 사포닌 생산 정보가 신종종 육성 등 농산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농업기술원 제7대 박경숙 원장이 1일 취임했다. 박 신임 원장은 공식 취임식을 생략하고 파프리카시험장에서 종자 품종 개발 연구 현장을 찾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은 최근 송하진 도지사로부터 사령장을 수여받고 있는 모습.

“농생명 수도로 전북 역량 강화”

‘조달행정 전문가’

박경숙 신임 전북농기원장 취임... 현장서 첫 업무 시작

전북도농업기술원 제7대 박경숙 원장이 취임했다. 농업기술원 첫 여성 출신인 박경숙 원장은 무주 출신으로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장을 거쳐 이번 7월 1일 정부 인사 발령에 따라 부임을 받았다.

공식 취임식은 생략하는 대신 전국 유일인 파프리카 종자 품종 개발 연구 현장을 찾은 박 원장은 "농생명 수도로 전북 역량을 강화해 도정 발전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농촌진흥청 등 국가 연구기관의 가고 역할을 통해 농생명 수도로 전북의 역량을 강화해 도정 목표인 삼라농정 농생명산업의 성장기반을 지원하고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이 특화된 연구개발 보급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맞춤형 농생명과학기술을 개

발 보급해 전북 농업·농촌의 혁신 동력을 만들고 디지털농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해 미래를 준비해 갈 것이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병해충의 선제적 대응과 전북 농업의 미래 주역인 청년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박경숙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먼저 고향에서 일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도정 발전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농촌진흥청 등 국가 연구기관의 가고 역할을 통해 농생명 수도로 전북의 역량을 강화해 도정 목표인 삼라농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민 기자

이주현 신임 전북조달청장 취임



제32대 이주현 신임 전북지방조달청장(56)이 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주현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혁신·디지털·글로벌'을 지향하는 조달행정 구현을 바탕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혁신 시제품 발굴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지향 조달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이주현 전북지방조달청장은 군산 출신으로 1995년에 7급 공채로 조달청에 입직해 전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과장, 감사담당관실, 청장 비서관을 거친 조달행정 전문가이다. /김윤상 기자

‘뮤지컬, 아는 만큼 즐길 수 있는 종합예술’

전북은행 운영 JB문화공간서 박칼린 예술감독 초청 특강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JB문화공간이 지난달 26일 문화공간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박칼린의 뮤지컬 특강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박칼린 강사는 한국음악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에 유학을 왔다. 한국 뮤지컬계에 입문한 이후 배우이자 예술감독, 음악감독을 거쳐 수많은 뮤지컬 배우들을 발굴하는 등 후배 양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차기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 박 감독은 "뮤지컬,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즐길 수 있는 종합예술"이라는 주제로, 뮤지컬 예술 감독으로서 또는 음악 감독, 그리고 배우로서 무대에서 쌓아온 오랜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마치 한 편의 뮤지컬을 공연하듯 대사를 읊고 뮤지컬 음악을 직접 부르며

위해서 작품의 형식이나 내용은 물론 음악도 들어보고 가면 더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다"며, 최근 블랙홀처럼 대한민국의 공연무대를 휩쓸고 있는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뮤지컬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특유의 섬세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보여주고, 뮤지컬 예술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배우들의 연기의 근간이 되는 연극무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연극을 사랑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문화공간의 한 회원은 "박칼린 감독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넘쳤고, 짧은 시간동안 뮤지컬뿐만 아니라 오페라, 연극, 한국 전통 문화까지 많은 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 열정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했다"며 "지방에서 보기 힘든 강연을 전북은행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주어 더욱 감사하며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개발청, 종합사업 관리체계 본격 운영 돌입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종합사업관리체계의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9개 관련기관 간 정보 공유, 소통 활성화로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 중복과 간섭현상 등 비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예방하고자 사업관리협의회가 열렸다.

새만금개발청은 현재 산업연구용지, 농생명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등에서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중이며 도로, 신항만, 상수, 배수지 등 광역기반시설 조성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광활한 새만금 지역 곳곳의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종합사업관리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합사업관리(Program Management)는 장기간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을 시작부터 완료까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혁신,신진기법으로 국내에서 도시건설에 적용하는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 참여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공정현황 파악, 집행실적 관리 등 추진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사업관리와 공정관리 절차·공정표 검토 등 기술 지원을 수행한다. /유효상 기자

변화하는 장례문화 선도

전주농협-에넌의정원 수목장, 협약 체결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과 ‘에넌의정원 수목장(대표 김병태)’은 지역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협력기반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장례문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1일 체결했다.

전주농협은 전국 최초로 농민조합원에게 농사연금을 4년간 약 90억원을 지급해, 지자체에서 농사연금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아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6월말 기준 상호금융예수금 1조5,000억원·상호금융대출금 1조3,000억원을 달성해 실적 면에서도 단연코 전국 최고의 농협이다.

에넌의정원 수목장은 '아름답고 안락한 영혼의 안식처'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전북 최초로 허가를 받은 수목장 전문 기관으로, 기존 장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국토잡식과, 집단묘지 시설

에 대한 혐오정서로 인한 다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장례업체다.

수목장은 화장한 분골을 나무 밑에 묻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산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환경과파괴가 없으며, 산림의 환경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커다란 공익 효과가 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급여 이체 고객 대상 이벤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급여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기간 동안 당행 입출금계좌로 급여를 처음 입금 받고(건당 50만 원 이상) 인터넷·스마트뱅킹 또는 올원뱅크에서 응모한 고객 중에서 500여 명을 추첨하여 드롭키 커피머신, LG 퓨리케어 미니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위 이벤트 응모 고객 중

중기 지원정책 공유

전북중기청, 지원협의회 개최

코로나19 극복 위해 노력 중인 중기 지원기관에 마스크 기증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지역내 29개의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협·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4회 전북중소기업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를 1일 개최했다.

지원협의회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개최하는 정례회의로서 기관별 지원정책과 현안·이슈를 공유하고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 및 정부규제를 발굴하여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역 내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소통기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1일 중소기업지원협의회를 연 자리에서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마스크 2000매를 기탁식을 함께 열었다.

새만금개발청, 고군산군도 주민대상 설명회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지난달 30일 선유도 고군산관광탐방지원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새만금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가 주관한 이날 설명회에는 새만금사업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새만금 사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고군산군도 개발방향에 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8월부터 군산시,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고군산군도 개발과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유효상 기자